

사이버모욕죄 보도의 프레임링 효과: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을 중심으로

허석재* · 민 영**

사이버모욕죄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핵심 가치(범죄로부터 안전 vs 표현의 자유)와 귀인 양식(일화적 vs 주제적 귀인) 측면에서 상반된 프레임링을 구축하여 경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뉴스 텍스트 내에서 프레임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에 주목하고, 구체적으로 가치가 신념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또한 귀인 양식이 정서적 매개 과정을 통해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분석되었다. 온라인 실험 결과, 뉴스 프레임링에 함축된 핵심 가치가 무엇이나에 따라 그에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가 변화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인 관점에서 분석된 핵심 가치의 정서적 효과는 미약한 수준에서 발견되었는데,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는 악플러에 대한 분노를 다소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분노 정서는 사이버모욕죄 찬성 의견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개인적 귀인이 사회적 귀인에 비해 '문제적 개인들'에 대한 분노 정서를 강하게 초래할 것이라는 가정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일화적 프레임링은 주제적 프레임링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핵심 가치가 함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뉴스 프레임, 프레임링 효과, 핵심 가치, 귀인 양식, 일화적 프레임, 주제적 프레임, 사이버모욕죄

1. 서론

조지 레이커프(George Lakoff)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Don't think of an elephant)』가 베스트셀러가 되며 정치권에서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대유행 되었다. 미국 진보주의자들이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혹은 보수주의자들이 승리)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잇따른 패배로 이어졌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는가가 정치적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언어의 선택(word choices)이나 이름짓기(labeling)가 그 성공의 관건으로 여겨지며 이를 '프레임'이라 일컫는 경우가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적 유행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무엇이며 그것의 효과, 즉 프레임링 효과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학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임 연구는 그 어떤 이론적 주제보다 왕성하게 전개되어 왔지만(Bryant & Miron, 2004; Graber, 2005), 프레임링 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나 그 결과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프레임링'이 현실을 선택적으로 재현하고 구성하는 상징적 처리자(symbolic handlers)로서 뉴스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집약해 내는 개념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을 통해 수용자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고 그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는 블랙박스의 암호를 풀어내는 것과 같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의 20년 전 엔트만(Entman, 1993)이 '분절화된 패러다임(fractured paradigm)'이라 표현했던 수준에 비해 최근의 연구가 확실한 진보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준웅(2009) 역시 지난

* 고려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homework@korea.ac.kr)

** 고려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교신저자(ymin@korea.ac.kr)

10년 간 한국에서 많은 프레임링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성과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준웅(2009)은 프레임링 효과의 과정과 결과를 탐색함에 있어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과 그 복잡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임은 뉴스 텍스트 내에서 표현요소, 이야기 구조, 가치 등 다양한 층위들이 결합하여 구성되므로, 프레임의 효과 역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초래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보다 이상적인 프레임링 효과 연구는 개별 층위에서의 효과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층위들이 결합하여 수용자들의 프레임에 초래하는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용자들의 해석적 틀 자체 혹은 그 후속 태도나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언을 반영하여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가치’를 중심으로 한 프레임링 연구를 살펴보자. 많은 선행 연구들이 프레임의 주요 요소로서 가치의 역할에 주목해 왔는데, 가치 프레임링(value framing)이란 특정한 가치와 이슈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만들고 그를 통해 이슈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것과 조우한 수용자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연계(association)를 강화하여 그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Brewer, 2001, 2002, 2003; Shah, Domke, & Wackman, 1996). 현실에서 뉴스 프레임은 진공 상태가 아닌 경쟁적인 맥락에서 전달되며, 이에 따라 상반된 가치들 간의 경쟁과 대립이 동반된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보도 역시 그와 같은 양상을 보여 주었다. 소위 사이버모욕죄는 2008년 7월에 최초로 발의가 검토되어 2009년 여름까지 소강과 대립 국면을 거쳤다. 여당이 통과를 추진하고 야당이 극단적인 반대로 맞섰던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하나지만, 방송법, 신문법과는 달리 2009년 7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사이버모욕죄라는 법안 명칭이 암시하듯, 이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건전하지 못한 인터넷 문화가 가진 다양한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악성 댓글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광범위한 모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병호, 2009; 동정민, 2008). 이에 반대하는 진영은 이를 ‘네티즌 통제법’이라 칭하며, 2008년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노현웅, 2008; 이유주현·고계규·석진환, 2008). 또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인터넷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신설에 찬성하는 논리에 내재된 주요 가치는 ‘(각종 사이버 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 추구’인데 반해, 반대하는 주장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어떤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뉴스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상반된 프레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뉴스 보도에 내재된 가장 현저한 가치가 무엇이나에 따라 수용자들의 마음속에서 활성화되고 의견 형성에 적용되는 가치가 상이해지면, 이에 따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도 다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이 가치 프레임링이 적시하는 효과이며,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뉴스 보도가 이러한 효과를 가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프레임 간의 경쟁은 상반된 혹은 이질적인 가치들의 대립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특정 사회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내리는 방식, 즉 귀인 양식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아이엔거(Iyengar, 1991)가 제안한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과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은 그러한 귀인 프레임의 대표적인 유형들이라 할 수 있다.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의 차이는 단순히 사용되는

표현 요소들(구체적 예시의 사용이나 어휘의 선택 등)의 차별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기승전결에 관련된 이야기 구조에서의 간극을 포괄하는 것이다. 일화적 프레임은 특정 사회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개인적 범주에서 규정하는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맥락과 해당 이슈를 연계시키고자 한다. 한국 언론의 사이버모욕죄 보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귀인이 나타났다. 먼저 일화적 프레임은 악성 댓글에 의한 유명 연예인의 죽음 등 선정적인 피해자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익명성을 무기로 한 네티즌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주제적 프레임에 기댄 기사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더 광범위한 인터넷 환경(산업)의 문제로 해석하거나 정치적 사안으로 설정하며 이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기존의 프레임 연구들이 인지적인 측면의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춰온 반면,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이 의견 형성에서 정서(emotions)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로스(Gross, 2008)에 따르면, 저널리스트들은 일화적 프레임을 통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s)를 돋구는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관심을 더 용이하게 유도하려 한다. 더 나아가 일화적 프레임의 이러한 선정성(vividness)이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수용자들에게 동정, 분노, 두려움 등의 정서를 더욱 강하게 유발함으로써 의견 형성에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입법적 혹은 정책적 수준의 변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처방 논리가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뉴스 프레임에 담겨진 귀인 양식에 따라 수용자의 의견 형성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서는 어떠한 매개 작용을 하는지를 사이버모욕죄 보도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렇듯 함축된 가치와 귀인 양식은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층위들을 대표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이지만, 이 두 층위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레이커프(Lakoff, 2004)는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적 가치체계를 ‘자상한 부모(nurturing parent)’와 ‘엄격한 부모(strict parent)’라는 크게 두 가지의 모델로 구분하였다. 아이엔저(Iyengar, 2005)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 체계와 귀인 양식은 밀접히 관련되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귀인은 ‘자상한 부모 모델’과 개인적 책임귀인은 ‘엄격한 부모 모델’과 각각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 보도에서도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은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나타났다. 때문에 뉴스 프레임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치와 귀인 양식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연구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뉴스 보도의 프레임링 효과는 정확하게 측정되기 어렵다. 특정 프레임은 고립된 상황에서 수용자와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쟁적 조건에 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프레임의 효과는 역프레임의 효과에 의해 상쇄되거나 유사한 프레임과의 결합을 통해 증폭되기도 한다(Brewer, 2002; Chong & Druckman, 2007a). 현실에서의 경쟁적 맥락을 재현할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뉴스 담론의 프레임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험은 현실적인 맥락을 차단하고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감소시킨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먼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실제 언론 보도의 경향을 분석한 후 그 특성을 실험 설계에 반영하여 현실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미디어 관련법의 일환으로서 사이버모욕죄는 여론 시장에

서 여전히 잠재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뉴스 보도가 여론에 미친 영향은 연구 대상으로서 시의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의의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핵심 가치의 프레임링 효과

이슈 프레임은 어떤 이슈나 정책적 사안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이엔거에 따르면 학문 영역에 따라 프레임 혹은 프레임링의 본질에 관련해 상이한 시각들이 제출되어 왔는데, 특히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동등성 프레임링(equivalency framing)”과 “강조 프레임링(emphasis framing)”이라는 두 접근이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왔다(Iyengar, 2005, p.5). 동등성 프레임링이란 논리적으로 동질적인 내용을 내포한 상이한 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지칭하며, 강조 프레임링이란 해당 사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 고려 사항들 중 특히 일부분을 부각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해석의 변화 혹은 그에 관련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치 프레임링은 강조 프레임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논의했듯이 특정한 가치와 이슈 사이의 연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용자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관계를 강화하고 이슈에 대한 그들의 이해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용자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가치에 관련된 생각들을 환기시킴으로써 프레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현안에 대해 형성되는 여론을 시민 개개인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학습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대량의 정보 유입 속에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지적 비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등의 개념들이 제시하듯이 인간 이성의 본질이 그들의 정보처리와 사회적 판단을 비용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끈다(Fiske & Taylor, 1991; McGuire, 1993; Wyer & Ottati, 1993). 가치 프레임링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정보 처리의 지름길(shortcut)로 삼는 것이며, 프레임 후원자들(예컨대, 정치인과 뉴스미디어)은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다양한 이슈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치 프레임링 효과를 입증해 왔다. 의료제도(Shah, Domke, & Wackman, 1996), 극우집단에 대한 관용의 문제(Nelson, Clawson, & Oxley, 1997), 지역개발(Nelson & Oxely, 1999), 복지정책(Brewer, 2001; Nelson & Oxely, 1999), 동성애자 권리(Brewer, 2002, 2003), 학교보충제도(School voucher, Brewer & Gross, 2005) 등이 그 예들이다. 그러나 이슈 보도에 함축된 가치가 이슈에 대한 의견 혹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시각이 제출되어 왔다. 먼저 프레임링 효과를 점화효과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는 특정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수용자의 인지 속에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쉽게 떠올려지고 이것이 태도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Kinder & Sanders, 1996; Nelson & Oxely, 1999에서 재인용). 젤러(Zaller, 1992)의 소위 ‘머리 꼭대기 모델(top of the head model)’ 역시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다. 수용자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과 정보가 존재하고 판단의 순간에 그 중 어떤 고려사항(consideration)이 가장 쉽게 떠올려지는지가 중요하며, 뉴스 프레임의 효과도 이러한 인지적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넬슨과 그의 동료들은 접근성 위주로 프레이밍 효과를 이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프레이밍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을 가장 접근가능하게 만드느냐 자체가 아니라 접근가능한 많은 고려사항들 중 어떤 것에 선차성(priority)을 부여하는가에 있다고 주장했다(Nelson, Clawson, & Oxley, 1997; Nelson & Oxley, 1999). 뉴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수용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활성화되었다더라도 그것이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접근가능한 요소들이 항상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석에 적용가능하다고(applicable) 볼 수 없다는 것이다(Chong & Druckman, 2007b). 예를 들어, 도심 시위가 교통 체증을 낳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수용자의 머릿속에 둘 사이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도 ‘교통 불편’이라는 요소는 시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루어(Brewer, 2001) 역시 접근성 위주의 접근은 ‘수동적 수용자(passive receiver)’를 전제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프레이밍 효과는 수용자 스스로의 좀 더 적극적인 사고 과정(thoughtful processing)을 거쳐 발생하는 것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넬슨과 동료 연구자들은 프레임 효과를 신념의 중요도(belief importance)에 의해 매개되는 모델로 제시했다. 어떤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갖게 되는 태도는 $\sum b_i * w_i$ 라는 모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b_i 는 i 라는 이슈의 속성에 대한 신념이고 w_i 는 그 신념 i 에 부여된 가중치이다(Nelson, Oxley, & Clawson, 1997). 따라서 특정한 가치에 관련된 신념이 접근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부여된 가중치, 즉 중요도에 따라 그것이 최종 의견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해진다. 이들에 따르면 프레이밍 효과와 설득 효과 간의 개념적 차별성이 명확해진다. 후자가 신념의 내용(belief content)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면, 전자는 신념에 부착된 중요성(belief importance)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Nelson & Oxley, 1999).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관련 보도에서 ‘표현의 자유’와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경합했다면, 수용자 의견에 대한 뉴스 프레임 효과는 각 가치에 관련된 신념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발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주로 가치 프레이밍의 인지적 매개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가치 프레이밍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상징적 정치이론(theory of symbolic politics)이 제시해 온 바와 같이 정치적 가치가 내재된 상징들이 특정한 감정적 반응을 조건화할 수 있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현상이다(Sears, 1993). 특정한 정치 가치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 집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그 집단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Kuklinski, Riggie, Ottati, Schwarz, & Wyer, 1991). 그러나 이슈 프레임에 함축된 추상적인 가치들이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데, 그 중 브루어(Brewer, 2001)가 미국의 복지축소정책(welfare reform)에 관해 실시한 실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해당 정책에 대한 상반된 가치 프레임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동정주의(compassion)로 복지혜택의 축소를 반대하는 프레임과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통해 그에 찬성하는 프레임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정 프레임은 수용자들에게 ‘분노’의 정서를 더 강하게 일으켰으며, 분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 프레임에 담겨진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레이커프(2004)의 가치체계 모델 역시 핵심 가치와 정서적 반응의 관계에 대한 추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엄격한 아버지 모델’로 명명된 가치관은 인간의 본성을 나약한 것으로 규정하며 개인들을

국가나 정부가 법이나 기타 질서 체계를 통해 보호하거나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한다. 반면 ‘자상한 아버지 모델’로 지칭되는 가치 체계는 개개인의 잠재력을 강고한 것으로 바라보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잠재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정부가 구조적인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엄격한 아버지’ 관점에서 어떤 이슈를 틀 지을 때, 많은 경우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대다수의 개인들을 보호하고 안전이나 질서와 같은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문제 있는’ 혹은 ‘비뚤어진’ 개인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관련된 상황이 범죄율이나 실업률의 증가와 같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일 때, ‘엄격한 아버지’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되는 대상에게 수용자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Lazarus, 1991). 반면 ‘자상한 아버지’ 관점에서 동일한 이슈를 틀 지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한 개인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구조적 책임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책임을 가진 일부 개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그리 강하게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 보도에 함축된 핵심 가치들도 이러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엄격한 아버지’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는 강력한 법체계에 의해 개인의 일탈을 처벌함으로써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반면 ‘표현의 자유’는 ‘자상한 아버지’ 가치체계에 분류될 수 있는데, 네티즌 개인들의 책임을 적시하더라도 이와 함께 그들 스스로 인터넷 문화를 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을 강조하거나 규제적 방식이 아닌 포털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때문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 일탈적 개인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까지 불러온 악성 댓글 게시자들에 대한 분노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 가치가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매우 탐색적이고 개방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가치 프레임링, 즉 뉴스 프레임에 내재된 핵심 가치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개인의 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적, 정서적 매개 과정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는 <연구가설 1>과 <연구문제 1>로 각각 제시되었다.

연구가설 1: 뉴스 프레임에 함축된 핵심 가치는 가치에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를 매개로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모욕죄 보도에서 강조되는 가치는 그에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를 높임으로써 입법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연구문제 1: 뉴스 프레임에 함축된 핵심 가치는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관련된 대상에 대한 정서는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사이버모욕죄 보도에 함축된 가치는 사이버 범죄의 책임 주체에 대한 분노 정서에 어떤 효과를 가지며 이는 입법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귀인 양식의 프레이밍 효과

귀인은 어떤 행위의 동기와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다.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역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왜 초래되었고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공적인 논쟁이나 여론 형성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귀인 프레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이고, 각각은 개인적 귀인과 사회적 귀인을 지칭한다. 일화적 프레임은 사회적 환경이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기보다 문제를 낳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화살을 돌려 공적 제도나 정치적 책임보다는 비뚤어진 일부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주제적 프레임은 좀 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맥락에 관심을 돌려 해당 사회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암시한다(Iyengar, 1991).

아이엔저(Iyengar, 2005)에 따르면 정치 뉴스의 귀인 양식은 대개 일화적 방식을 차용하는데, 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나 정치적 개혁을 지연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주제적 프레임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의 뉴스 보도에서 귀인 프레임과 정책 변화에 대한 입장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도 차별화된다. 또한 상당수의 기사에서 이 두 유형의 귀인 양식이 상호배타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뚜렷한 귀인 양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개념들이 매우 명쾌하게 뉴스 프레임을 책임귀인의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프레이밍 효과는 수용자의 책임귀인, 즉 책임소재 해석에 대한 영향력임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일화적, 주제적 프레임의 인지적 효과, 즉 책임귀인에 대한 효과를 입증해 왔는데(Haider-Markel & Joslyn, 2001; Iyengar, 1990, 1991, 1996), 본 연구는 더 나아가 귀인 양식이 책임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정서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서의 인지적 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models of emotions)에 따르면 책임귀인은 특정한 정서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인지적 평가 차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나은경·송현주·김현석·이준웅, 2008; Betancourt & Blair, 1992; Lazarus, 1991; Smith, Haynes, Lazarus, & Pope, 1993), 책임 관계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상에 대한 상이한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그로스(2008)가 지적하였듯이 개인적 귀인 양식에 필연적으로 결합되는 인간적 흥미 요소들과 사례의 구체성은 이러한 정서적 효과를 한층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스는 실험을 통해 이러한 가정을 입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강제적 최소선고법(mandatory minimum sentencing laws)에 반대하는 기사를 각각 일화적 혹은 주제적 프레임으로 구성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일화적 프레임(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에 초점)에 접하였을 경우 주제적 프레임(수용 시설이나 재정적 문제에 초점)에 접하였을 때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더 강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논의를 사이버모욕죄 보도와 관련해서 적용해 볼 때, 귀인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에게 차별적인 정서가 유발되고 이것이 다시 법안의 도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일화적 프레임은 ‘악플러’나 ‘네티즌 개인’의 행동을 가장 중요한 책임 주체로 설정하기 때문에 악플러에 대한 분노 정서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상에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수용자 일반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책임 주체로 암시된 대상에게 부정적인 정서, 특히 ‘분노’의 정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Lazarus, 1991). 반면 주제적 프레임의 경우 주어진 가치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포털 산업이나 기타 사회구조적인 단위의 책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추상적이고 건조한 논지 전개 특성 때문에 그 정서 유발의 강도는 미약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귀인 프레임 이슈에 대한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2>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뉴스 프레임의 귀인 양식은 관련된 대상에 대한 정서를 매개로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모욕죄 보도에 나타난 귀인 양식은 책임 주체에 대한 분노 정서를 통해 입법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1) 내용분석 방법과 결과

(1) 내용분석 방법

사이버모욕죄 보도에 나타난 실제 가치와 귀인 양식을 실험 처치에 반영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내용분석은 매우 엄밀한 방법과 절차를 걸쳐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 특성을 일반화하려는 목적이 아닌, 실험 설계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최초 발의된 2008년 7월을 시점으로 미디어법의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었던 2009년 6월 말까지 1년에 걸쳐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들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란은 유명 연예인의 사망과 미네르바 사건 등을 거치며 고조와 소강 국면을 반복했으나, ‘미디어법 국민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논의가 신문법과 방송법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덜 받게 되었다.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취한 대표적인 일간지들로, 한국언론재단의 뉴스검색서비스 카인즈(KINDS)를 통해 접근 가능했기에 선택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사 제목에 사이버모욕죄가 포함된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한겨레신문이 총 102건, 동아일보가 총 44건으로 총 146건이 수집되어 한겨레신문이 2배 이상의 빈도로 이 이슈를 보도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겨레신문이 사이버모욕죄를 공중의 관심사로 설정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내용분석의 주요 변인들은 기사에 함축된 핵심 가치, 귀인 양식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등이었다. 먼저 핵심 가치의 경우, 범죄의 예방과 공공질서의 확립,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기타 가치 등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두 개까지 복수코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범죄의 예방 및 질서의 유지와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 추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은 각각 한 기사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들 유목들을 각각 합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귀인 양식은 이론적 논의에 따라 <일화적

vs 주제적> 유형으로 구별되었다.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개별적 사례들을 보여주며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일부 네티즌의 부적절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례들도 존재함을 보여주며 법의 신설보다는 네티즌들의 자성과 협력을 강조하는 경우는 일화적 프레임으로 코딩되었다. 반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 네티즌 개인들보다 현행 인터넷 산업, 기술, 문화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사이버모욕죄가 발의된 정치적 의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법의 신설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은 주제적 프레임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입장은 강한 반대에서부터 강한 찬성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¹⁾

(2) 내용분석 결과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 기사 146건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두 신문사는 강조된 가치와 귀인 양식 두 측면 모두에서 상이한 프레임을 지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동아일보는 총 44개의 기사 중 22개가 특정한 가치를 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범죄 예방과 질서의 확립’과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강조한 기사가 20개로 약 91%를 차지하였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총 102개의 기사 중 53개의 기사에서 특정 가치가 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중 89%가 ‘표현의 자유’를, 약 9.4%가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가장 주요한 것으로 암시하였다. 귀인 프레임에 있어서도 두 신문은 차이를 보였는데, 한겨레신문은 주제적 프레임이 전체 기사의 34.2%를 차지한 반면 일화적 프레임은 4.9%에 그쳤다. 나머지 기사에서는 특별한 귀인 양식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동아일보의 기사들 중 25%가 일화적 프레임을 차용하였으며, 주제적 프레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신문 간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 가치와 귀인 프레임, 그리고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입장(찬성 혹은 반대)이 어떻게 결합되었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이준웅(2009)이 지적한 바와 같이, 뉴스 텍스트 내에서 서로 다른 층위의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뉴스 프레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를 추론하는 데에 핵심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보도에서 핵심 가치와 귀인의 양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핵심 가치에 따른 귀인의 패턴을 살펴본 결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사들(N=54)의 55.6%가 주제적 프레임으로 구성되었고 11.1%만이 일화적 프레임을 띠었다. 반면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기사의 경우(N=20), 50%가 넘는 기사들에서 특별한 귀인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기사들은 모두 일화적 프레임을 주된 귀인 양식으로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귀인 양식이 결합되고, ‘범죄로부터 안전 추구’라는 가치는 개인적 차원의 귀인 양식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핵심 가치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입장과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우 대다수(94.4%)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약한 반대 혹은 강한 반대 의사를 암시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 중 85%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약한 찬성 혹은 강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귀인 양식 역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일화적 프레임

1) 내용분석에는 3인의 코더가 참여했으며, 전체 표본의 약 13%를 차지하는 20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주요 유목에 대한 홀스티 신뢰도 계수(Holsti's intercoder reliability coefficient)를 산출한 결과, 핵심 가치는 0.9, 귀인 양식은 0.85, 입법에 대한 입장은 0.95를 각각 나타냈다.

을 띠는 경우 약 60%에 해당하는 기사들이 법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주제적 프레임으로 사안에 접근한 기사들은 모두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함축했다. 요컨대,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 입법의 거시적 맥락을 파악하려는 기사들은 압도적으로 법안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네티즌들의 행위 교정을 위해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표 1>은 두 가지 유형의 핵심 가치에 따른 귀인 양식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입장의 분포를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

다시 언급하건대 이상의 내용분석은 두 신문사 외의 주요 일간지나 방송사 뉴스를 포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에 무리가 있으며, 현실 타당성이 높은 실험 설계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내용 분석 결과는 현실의 사이버모욕죄 보도에서 가치와 귀인 양식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프레임을 구성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 주었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엄밀한 내용 분석을 통해 프레임 구성의 원리를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표 1> 핵심 가치에 따른 귀인 양식과 모욕죄 도입에 대한 입장

모욕죄 도입에 대한 입장		핵심 가치		전체
		범죄로부터 안전	표현의 자유	
찬성	일화적	9	0	9
	주제적	0	0	0
	귀인 프레임 없음	8	0	8
중립	일화적	0	1	1
	주제적	0	0	0
	귀인프레임 없음	3	2	5
반대	일화적	0	5	5
	주제적	0	30	30
	귀인 프레임 없음	0	16	16
전체		20	54	74

2) 실험 설계

(1) 온라인 실험 설계 및 절차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용분석 결과는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이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 층위들로서 존재하면서도 상호 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음을 보여 주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아이엔저(2005) 역시 대부분의 뉴스에서 사회적 책임귀인 양식은 ‘자상한 아버지’ 가치체계와, 개인적 책임귀인 양식은 ‘엄격한 아버지’ 가치체계와 각각 연동되어 프레임을 구성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이버모욕죄 관련 뉴스의 내용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일치하여, ‘표현의 자유’는 주로 거시적 귀인에,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는 주로 미시적 귀인에 연관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되, 본 연구가 탐구하려는 가치와 귀인 프레임의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 3개의 실험 집단으로 구성된 일종의 부분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를 구축하였다. 실험 집단은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에 따라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귀인>, <표현의 자유/일화적

귀인> 등의 세 개로 구축되었는데, 이후 데이터 분석에서 <표현의 자유/일화적 귀인> 조건은 비교집단(baseline)으로 활용될 것이다.²⁾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규제를 통한 질서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사이버 범죄 행위의 사회구조적 배경과 책임성을 논의하는 조합은 논리적,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러한 실험설계는 그로스(2008)에 의해서도 활용되었는데, 귀인 프레임의 정서 효과가 피해자의 인종에 따라 차별화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화적 프레임/백인 피해자>, <일화적 프레임/흑인 피해자> 그리고 <주제적 프레임>이라는 세 실험 집단을 처치하고 세 번째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규모가 큰 설계를 차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과 드랙맨(Chong & Drukman, 2007a) 역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경쟁적 프레임 맥락을 충분히 재현하기 위해 의견의 방향, 강도 그리고 경쟁 수준에서 상이한 총 17개의 실험집단을 처치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 처치물에 대해 살펴보자.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에 해당하는 기사는, 사이버 범죄의 증가는 악플러라고 불리는 일부 네티즌의 책임이기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터넷 포털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통한 규제보다 포털산업 스스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표현의 자유/일화적 귀인>에 해당하는 기사는,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는 일부 네티즌의 책임이 존재하나 최근 선플 운동 등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도입하기보다 네티즌 스스로 자정 노력을 벌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규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도 언급되었다.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귀인>에 해당하는 기사는, 사이버 범죄의 증가는 악플러 등 일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있고 이것이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법체계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진술도 포함되었다. 세 개의 처치물은 모두 2008년 4월 23일에 발행된 <연합뉴스>의 온라인판 기사인 것으로 제작되었다.

<표 2> 실험 집단의 특성 요약

	표현의 자유		범죄로부터 안전
	주제적	일화적	일화적
성별(여자)	46.7%	48.1%	55.2%
연령	22.76 (2.55)	23.07 (2.39)	22.62 (2.21)
정치성향	3.89 (1.29)	3.53 (1.24)	3.33 (.88)
인터넷 이용	4.37 (1.55)	3.97 (1.52)	3.97 (1.27)
정치지식	3.04 (1.32)	3.24 (1.18)	3.10 (1.03)
N	27	29	30

2) 세 개의 실험 집단 중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과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귀인>이 두 개의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구축되어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일화적 귀인>은 제외된 범주(the excluded category)로서 자동적으로 비교집단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이 가변인들에 대한 회귀계수는 비교집단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험은 온라인 조사 사이트(www.koreasurvey.org)의 기능을 이용해 설계되었으며 실험 집단에 따라 독립적인 링크가 생성되었다. 총 282명의 대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메일에는 두 개의 사이트가 첨부되어 먼저 사전 문답을 한 후 기사가 포함된 사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0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총 3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중 사후 문답을 완성하지 않은 15명을 제외한 86명만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2>는 실험 집단의 성, 연령, 정치성향, 정치지식 등의 분포를 요약하고 있으며, 실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동질성 가정을 만족시켰다. 응답자들이 기사의 내용에 충분히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기사 내 맞춤법 오류를 2개 이상 찾도록 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2) 주요 변인들의 측정

주요 종속변인들 중, 먼저 핵심 가치의 인지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신념의 중요도가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의 각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와 “악성 댓글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신념 진술문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중요도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드럭맨 등(Chong & Druckman, 2007; Druckman & Nelson, 2003)의 연구를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가치와 귀인의 정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 처치물에서 책임 주체로 거론된 대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책임 주체로는 일화적 귀인 양식에서 부각되는 악플러에 주목했다. 포털 산업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주체적 귀인 양식의 경우, 그것이 유발하는 정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의견은 강한 반대에서부터 강한 찬성을 포괄하는 7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통제변인으로는 정치지식, 정치이념성향,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그리고 성별이 측정되었다. 먼저 정치지식은 프레임 효과의 가장 주요한 중재변인들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식수준이 프레임 효과를 강화하느냐 혹은 약화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Brewer, 2003; Chong & Druckman, 2007b; Druckman & Nelson, 2003; Heider-Merkel & Joslyn, 2001).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문항을 통해 정치지식을 측정하였는데, 세 개의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과 두 개의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을 포함했다. 한편 수용자가 내면화하고 있는 정치가치 역시 프레임 효과의 주요한 중재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Chong & Druckman, 2007b; Nelson & Garst,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는 정치적 이념성향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이버모욕죄는 여당이 발의하고 정부가 추진한 입법 사항이기에 현 정부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의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경우 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별 역시 통제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4. 연구결과

<표 3>은 실험집단에 따라 주요 종속 변인들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그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제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단순 비교한 것이므로,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의 효과를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주요 통제변인들을 추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완전한 요인설계(full factorial design)가 아닌 부분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이며 주요 독립변인인 가치와 귀인 양식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원분산분석(2-way ANOVA)이나 공분산분석(ANCOVA)보다는 회귀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회귀분석을 위해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과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귀인>을 각각 가변인으로 구축하였으며 <표현의 자유/일화적 귀인>은 비교집단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결과에서는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의 회귀계수는 귀인 양식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귀인>은 핵심 가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실험집단에 따른 주요 종속변인들의 평균값 비교

종속변인	표현의 자유		범죄로부터 안전	F값
	주제적	일화적	일화적	
표현의 자유 신념 중요도	3.37 (1.62)	3.76 (1.48)	3.13 (1.74)	1.120
범죄로부터 안전 신념 중요도	4.93 (1.28)	5.52 (1.31)	5.57 (.97)	2.551
악플러에 대한 분노	5.07 (1.90)	4.86 (1.58)	5.53 (1.28)	1.369
입법에 대한 찬성	4.52 (1.78)	3.21 (1.70)	4.27 (1.93)	4.224 ^{a)}
N	27	29	30	86

주. ^{a)}사후분석(Tukey test) 결과, <표현의 자유/주제적> 집단과 <표현의 자유/일화적> 집단 간에 입법에 대한 찬성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다른 종속변인들에 대해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05.

1) 핵심 가치의 인지적, 정서적 효과

<연구가설 1>은 핵심 가치가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를 상승시킴으로써 그에 담겨진 관점을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신념으로는 “악성 댓글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의 중요도가 측정되었고, 범죄로부터 안전 추구와 관련된 신념으로는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의 중요도가 측정되었다.

먼저 <표 4>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신념 중요도에 핵심 가치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미약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beta = -.216, p = .076$). 즉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집단은 비교집단인 <표현의 자유/일화적> 조건에 비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신념을 다소 덜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안전과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핵심 가치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는데,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를 접했을 때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것이다($\beta = -.244, p < .05$). 그러나 안전과 관련된 신념중요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모델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념 중요도와 정서에 대한 가치/귀인 프레임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표현의 자유’ 신념 중요도	‘범죄로부터 안전’ 신념 중요도	악플러에 대한 분노
통제 변인	성별(여성)		- .192† ^{a)}	.113	.146
	정치 지식		.191†	- .017	.024
	부정적 국정 평가		.057	- .104	.193
	보수적 이념성향		- .276*	- .061	.162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			- .070	.248†	.070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귀인			- .216†	.258*	.240†
수정된 R ² (%)			9.3*	2.1	2.0

주. ^{a)}표준화된 회귀계수. <표현의 자유/일화적 귀인>은 제외된 유형으로 비교집단으로 활용. N=86, † <math>p < .10</math>, * $p < .05</math>, ** $p < .01</math>, *** $p < .001</math>.$$$

<연구가설 1>은 신념 중요도의 매개 효과를 가정한 것이므로, <표 5>에 제시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이버모욕죄 관련 의견에 대해 이들 신념 중요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성 의견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나($\beta = .258, p < .05$), 안전과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는 사안에 대한 의견과 뚜렷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합하자면, 사이버모욕죄 보도에 나타난 핵심 가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 인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가치와 의견을 매개하는 신념 중요도의 유의미한 역할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

한편 탐색적인 수준에서 설정된 <연구문제 1>은 핵심 가치가 책임 주체에 대한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며, 이는 ‘악플러’라고 통용되는 일부 네티즌들에게 대한 분노 정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표 4>에 따르면, 귀인 양식이 일화적 유형으로 동일할 때,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비해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는 악플러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beta = -.240, p = .058$). 탐색적인 수준에서 설정된 연구문제임을 상기할 때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 모델설명력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의 결과가 제시하고 있듯이, 악플러에 대한 분노 감정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다소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가치와 의견을 매개하는 정서의 유의미한 기능을 암시하였다($\beta = .176, p = .082$). 요컨대, 미약한 정도에서나마 프레임이 함축한 핵심 가치는 특정 책임 주체에 대해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책 의견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정치지식과 부정적 국정 평가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치 지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반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표 5> 사이버모욕죄 입법 의견에 대한 신념 중요도와 정서의 매개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입법에 대한 찬성 의견	
통계 변인	성별(여성)		.173† ^{a)}	.095
	정치 지식		-.258*	-.215*
	부정적 국정 평가		-.259*	-.284*
	보수적 이념 성향		.083	-.012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			.284*	.244*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귀인			.266*	.160
표현의 자유 신념 중요도				-.244*
범죄로부터 안전 신념 중요도				.039
악플러에 대한 분노				.182†
$\Delta R^2(\%)$				10.9**
수정된 $R^2(\%)$			30.6***	

주: ^{a)}표준화된 회귀계수. <표현의 자유/일화적 귀인>은 제외된 유형으로 비교집단으로 활용. N=86, † < .10, * p <.05, ** p <.01, *** p <.001.

2) 귀인 양식의 정서적 효과

<연구가설 2>는 귀인 양식이 특정 책임 주체에 대한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을 통해 최종 의견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탐색하고자 설정되었다. 일화적 프레임의 책임귀인 논리와 그에 결부된 구체적 장치들이 해당 책임 주체에 대한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이와 같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가 제시하고 있듯이, 비교집단과 귀인 양식에서 차별적인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 조건에서 악플러에 대한 분노가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악플러에 대한 분노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귀인 양식과 의견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 역할은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부분적으로 핵심 가치의 상쇄 효과(counteracting effects)가 작동한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핵심 가치의 정서적 효과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는 일탈적 개인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들 스스로의 교정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책임 주체인 악플러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한층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와 결합되었을 때에는 일탈적 개인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귀인 양식에 따라 더욱 확연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설계의 한계 상,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이뤄질 수 없었다.

한편 핵심 가치가 ‘표현의 자유’로 동일한 상황에서 귀인 양식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악플러 등 일부 네티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화적 프레임보다 포털 산업의 시스템의 문제로 책임을 귀인한 주제적 프레임을 접했을 때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성 의견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beta = .244, p < .05$). 이는 다시 말해서, 일화적 귀인 양식이 주제적 양식에

비해 해당 가치, 즉 ‘표현의 자유’가 함축하는 방향으로 수용자들의 의견이 형성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것이다. 본 실험 데이터에 기초해 이러한 결과의 의미나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참여자들이 포털 기업의 시스템 개선이나 사회책임성을 위한 노력보다 선포 달기 운동 등 네티즌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더 신뢰하였고 이것을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대체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평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5. 결론

의제설정이론이나 점화이론과 더불어 뉴스 효과 연구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프레임링 이론이 큰 주목을 받아온 것은, 뉴스미디어가 여론의 지점뿐 아니라 그 방향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프레임링 효과의 메커니즘과 본질에 대해서는 학문적 영역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어떠한지 논쟁적인 이슈나 사회 문제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 더 나아가 여론의 형성에 미치는 프레임 효과에 대한 관심은 공유되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뉴스 텍스트 내에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에 주목하였으며, 핵심 가치가 신념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정서를 통해, 그리고 귀인 양식이 정서를 통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 연구들이 입증해 온 것처럼 뉴스 프레임에 함축된 핵심 가치가 무엇이나에 따라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가 변화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핵심 가치는 직접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신념 중요도를 매개로 그러한 효과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신념의 중요도와 관련해서는 모델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나, 향후에는 어떤 가치가 수용자들에게 더 공명하며 덜 공명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탐색적인 차원에서 분석된 핵심 가치의 정서적 효과는 미약한 수준으로 발견되었으며, 특히 악플러에 대한 분노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성 의견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추정할 수 있었다. 관련된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가치가 어떤 유형의 이슈나 사회문제에 결합될 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브루어(Brewer, 2001)의 연구에서처럼,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가 평등주의적 가치 혹은 개인주의적 가치 중 어떤 관점에서 조명되느냐에 따라 관련된 대상(직접적인 복지 수혜자나 세금 부담자들)이나 정책 자체에 대해 상이한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 노동자 파업과 같은 이슈에도 ‘안전’과 ‘질서’를 강조하는 가치와 ‘자유’나 ‘권리’에 무게를 실는 가치 중 어떤 것이 결합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이나 사업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는 해당 문화권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들 중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도록 학습되고 조건화된 유형의 가치들이 존재하는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적이거나 일회적 유형의 귀인 양식이 수용자들의 책임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널리 연구되어 온 바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부 선행 연구의 논의에 기대어

귀인 양식의 정서적 효과를 탐구하고자 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귀인의 정서적 효과는 책임관계 평가의 후속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귀인 장치들이 가지는 효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에 기대어 일화적 귀인 양식이 범죄의 책임 주체인 악플러에 대한 분노 정서를 더 강하게 유발할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실험 결과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반면 귀인 양식이 이슈 의견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주제적 귀인에 비해 일화적 귀인이 가치가 함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형성되는 데에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전한 요인설계(full factorial design)를 취하지 않은 본 실험설계의 제한점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귀인 양식의 독립적인 효과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특정 가치(표현의 자유)와 상호작용한 결과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귀인의 정서 효과와 그를 통해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은 후속 연구에서 상이한 이슈와 가치를 대상으로 재분석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정서의 효과를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분노 이외에 다른 정서 유형들(예를 들어, 불안, 희망, 동정 등)의 역할도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준웅(2009)이 지적한 대로, 뉴스 텍스트의 구성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을 때 프레이밍 효과의 본질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 사이의 간극은 한층 심화될 수 있다. 어떤 가치를 부각시키며 어떻게 책임 관계를 조명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뉴스 텍스트는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그로 인한 효과의 발생을 좀 더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은 이러한 관점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부 이론적 논의가 예측했듯이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은 뉴스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연관성을 보이며 프레임을 구성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주로 주제적 귀인 양식과,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는 일화적 귀인 양식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실험설계에 반영되었다. 연구방법으로서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의 시·공간적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추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텍스트 효과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의 효과를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용분석은 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실험 연구가 가진 외적 타당도의 한계를 다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Riffe, Lacy, & Fico, 1998).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해서, 프레임의 두 요소인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방법론적 제한점들 역시 존재했는데, 특히 선행 연구의 지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의 중요도’에 대한 측정이 ‘신념의 내용’에 대한 측정과 타당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서 역시 일부 책임주체에 대한 것뿐 아니라 정책 자체 혹은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도 측정될 필요가 있었다. <범죄로부터 안전/일화적 귀인> 집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표현의 자유/주제적 귀인> 조건에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실험 처치 역시 완벽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본 연구는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이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각각이 고유한 메커니즘을 통해 수용자에게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중 어디까지가 혹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프레이밍 효과인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결국 뉴스 프레임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 원리를 감안할 때 의견의 방향에 대한 영향력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었다. 한 사회에서 프레임 후원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원 형태를 띠는 뉴스미디어는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Nelson

& Oxely, 1999). 또한 뉴스 프레임 구성 과정에서의 권력의 문제를 고려할 때(Carragee & Roefs, 2004),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에 대해 뉴스 프레임이 가지는 효과는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 더 나아가 미디어 관련법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 모두에서 매우 상반된 프레임으로 경쟁하고 각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현실에서 가치나 귀인의 충돌은 프레임 효과의 상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사이버모욕죄가 그 쟁점의 성격상 이념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론 시장에서의 논쟁은 현 정부에 대한 태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정치적 이슈(예컨대,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나 정치적 이념과는 다소 무관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대립을 내포하는 이슈(예컨대, 소위 경희대 패륜녀 사건 등) 등 상이한 범주의 사회문제에 대해 뉴스 프레임의 구성 원리와 그에 따른 효과의 메커니즘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슈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핵심 가치나 귀인 양식, 혹은 수사적 표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뉴스 텍스트 내에서 결합되거나 배척되고 이것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혹은 조직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광범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프레임 효과 연구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공병호 (2009. 1. 20). 이름을 걸어야 책임을 진다. 『동아일보』, 30.
- 나은경 · 송현주 · 김현석 · 이준웅 (2008). 정서의 프레임링: 경제 뉴스 보도 기사의 정서 반응 유발 효과.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378~406.
- 노현웅 (2008. 7. 23). 인터넷 여론 입 틀어막기: 화난 ‘넷심’ 부글부글. 『한겨레신문』, 4.
- 동정민 (2008. 12. 16). 질서세우는 법이 어떻게 이념법안이다. 『동아일보』, 6.
- 이유주현 · 고제규 · 석진환 (2008. 8. 29). 여당 ‘반촛불 입법안’ 뭐가 문제인가. 『한겨레신문』, 3.
- 이준웅 (2009). 뉴스 틀 짓기 연구의 두 개의 뿔. 『커뮤니케이션 이론』, 5권 1호, 123~166.
- Betancourt, H., & Blair, I. (1992). A cognition(attribution)-emotion model of violence in conflict situ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3), 343~350.
- Brewer, P. R. (2001). Value words and lizard brains: Do citizens deliberate about appeals to their core values? *Political Psychology*, 22, 45~64.
- Brewer, P. R. (2002). Framing, value words, and citizens' explanations of their issue opinions. *Political Communication*, 19(3), 303~316.
- Brewer, P. R. (2003). Values, political knowledge, and public opinion about gay rights: A framing-based account. *Public Opinion Quarterly*, 67, 173~201.
- Brewer, P. R., & Gross, K. (2005). Values, framing, and citizens' thoughts about policy issues: Effects on content and quantity. *Political psychology*, 26(6), 929~948.
- Bryant J., & Miron, D. (2004). Theory and research in mass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4(4), 662~704.
- Carragee, K. M., & Roefs, W. (2004). The neglect of power in recent fram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4(2), 214~233.

- Chong, D., & Druckman, J. N. (2007a). Framing public opinion in competitive democra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4), 637~655.
- Chong, D., & Druckman, J. N. (2007b). Framing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103~126.
- Druckman, J. N., & Nelson, K. R. (2003). Framing and delibe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 728~744.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Graber, D. (2005). Political communication faces 21st century. *Journal of Communication*, 55(3), 479~507.
- Gross, K. (2008). Framing persuasive appeals: Episodic and thematic framing, emotional response, and policy opinion. *Political Psychology*, 29(2), 169~192.
- Kuklinski, J. H., Riggle, E., Ottati, V., Schwarz, N., & Wyer, R. S. (1991). The cognitive and affective bases of political tolerance judg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1), 1~27.
- Haider-Markel, D., & Joslyn, M. R. (2001). Gun policy, opinion, tragedy, and blame attribution: The conditional influence of issue frames. *Journal of Politics*, 63(2), 520~543.
- Iyengar, S. (1990). Framing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issues: The case of poverty. *Political Behavior*, 12(1), 19~40.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1996). Framing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issu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 59~70.
- Iyengar, S. (2005). Speaking of values: The framing of American politics. *The Forum*, 3(3)[Online]. Available at: <http://pcl.stanford.edu/research/papers/>.
- McGuire, W. J. (1993). The poly-psy relationship: Three phases of a long affair. In S. Iyengar & W. McGuire (Eds.),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pp. 9~35).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Vermont: Chelsea Green Publishing.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elson, T. E., Clawson, R. A., & Oxley, Z. M. (1997). Media framing of a civil liberties conflict and its effect on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3), 567~583.
- Nelson, T. E., & Garst, J. (2005). Values-based political message and persuasion: Relationships among speaker, recipient, and evoked values. *Political Psychology*, 26(4), 489~515.
- Nelson, T. E., & Oxley, Z. M. (1999). Issue framing effects on belief importance and opinion. *Journal of Politics*, 61(4), 1040~1067.
- Nelson, T. E., Oxley, Z. M., & Clawson, R. A. (1997). Toward a psychology of framing effects. *Political Behavior*, 19(3), 221~246.
- Riffe, D., Lacy, S., & Fico, F. (1998). *Analyzing media message: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 resear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ears, D. O. (1993). Symbolic politics: A socio-psychological theory. In S. Iyengar & W. J. McGuire (Eds.),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pp. 113~149). NC: Duke University Press.
- Shah, D. V., Domke, D., & Wackman, D. B. (1996). To thine own self be true: Values, framing, and voter decision-making strategies. *Communication Research*, 23(5), 509~560.
- Smith, C. A., Haynes, K. N., Lazarus, R. S., & Pope, L. K. (1993). In search of the "hot" cognitions: Attributions, appraisals, and their relation to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916~929.

- Wyer, R. S., & Ottani, V. C. (1993).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In S. Iyengar & W. McGuire (Eds.),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pp. 264~295).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Zaller, J.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 2010.5.31, 수정일자 : 2010.10.11, 게재확정일자 : 2010.10.19)

ABSTRACT

The Press Coverage of the Cyber Defamation Laws: Framing Effects of Core Values and Attributional Patterns

Suk-Jae Hur* · Young Min**

In covering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so-called cyber defamation laws, the Korean press offered competitive frames in terms of values (security vs. freedom of speech) and attributional patterns (episodic vs. thematic attribution). By attending to core values and attributional patterns as two essential components of news frames, this study explored the cognitive and affective processes of value and attributional framing and their effects on issue opinion. According to a 3-group online experiment, first, it was found that core values increase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relevant beliefs, which further affected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the laws. The affective effects of core values were also found marginally significant. The value of security increased the intensity of anger toward deviant netizens (so-called defamatory repliers), and it further increased individuals' support for the laws. It was not substantiated, however, that individualistic attribution, than social attribution, would provoke stronger anger toward defamatory repliers. Instead, episodic frames appeared to be more effective in driving issue opinion as indicated by the value frame.

Keywords: News frames, Framing effects, Core values, Security, Freedom, Attributional patterns, Episodic frame, Thematic frame, Cyber defamation laws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homework@korea.ac.k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ymin@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